

# 척박한 영토에 서정의 씨 뿌리는 시집 몇권

## 서정의 물꼬 튼 시부터 생명의 꿈틀거림 포착한 시까지

시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판 걸썩한 이념의 잔치가 모두 파한 후 자신의 깃발만이 스산하게 필러이는 시대에 도취의 피안으로 떠나버렸는가. 아니면 도연명의 후예들처럼 한뼘의 텃밭을 일구며 한유의 시간을 탐하고 있는가. 여기저기 시대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누구는 몸을 팔고 누구는 영혼마저 저당잡힌 채 자꾸만 쿨럭이는데 시인의 발자국 소리는 그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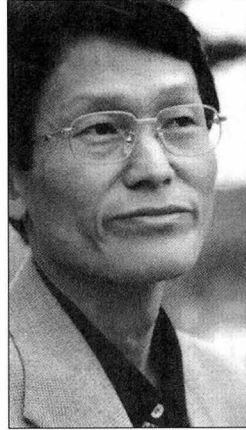
때로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시대와 같등하고, 때로는 계관의 영광을 누리던 시인의 시대는 정녕 갔는가. 밤이 깊을수록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시대는 불행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은 그것이 추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그 추억이 재생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인들 상처와 고통이 없을 것인가. 각 개인, 각 사회, 각 시대는 저마다 고난의 몫을 공평하게 분배받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품목은 다를 수밖에 없는 법. 현상적으로 시의 시대는 갔지만 시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시대의 상처를 감지하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삶의 쓰라림을 증언한다. 그러기에 시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을 열어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우리시대의 시인들이 피워올린 모닥불을 쬐고 있는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냉경적 서정의 세계

여기 여전히 저주받은 운명을 행복하게 감당해나가는 시인들의 시집 몇권이 우리 가까이 있다. 황폐한 영혼에 서정의 물꼬를 튼 시들이 있는가 하면, 절제된 언어로 삶과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꿈틀거림을 선적인 언어로 포착한 시들까지 하나로 아우를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백석과 박재삼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사랑과 그리움의 시인 고재중. 그의 《양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문학동네)에는 까마득하게 잊혀져가는 냉경적 서정이 조약돌처럼 빛나고 있다. “무언가 다 놓쳐버리고/문득 황황해하듯 홀로 강둑에 선 오늘/꼭 가끔 때문만도 아니게 강은 자꾸 여우고/...../오늘도



왼쪽부터 고재중·고형렬·이태수·김영남·이시영 시인.

강변에 고추명석이 널리고/작은 패랭이꽃이 흔들릴 때/그나마 실날 같은 흰줄기를 뚫으며 흐르는/강물도 저렇게 그리움으로 아위었다는 말인가》(《양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눈은 내려서, 무장무장 내려서, 이 가난함이랑 외로움도 푹푹 젖어서, 나는 세상의 그리운 것들을 참 많이 헤아리고 마음은 또 뜨거운 것으로 가득해지는 때” (《이심전심의 눈》) 등 그리움과 외로움의 실체가 쉬 잡히지는 않지만, 그의 시에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사다다리를 거두지 않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

고재중 시인이 자연과 우주의 숨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아직도 초록 들판에서 휘파람을 부는 쪽에 서” 있는 시인이라면, 《성에꽃 눈부처》(창작과비평사)의 고형렬 시인은 자질구레한 일상의 공간에서 부처의 대자대비를 깨닫는다. 거리에서 “분별하지도 않고 가르지도 않고/오직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눈먼 사람이 아름답” (《봄》)이라고 느끼고, “창밖은 모래알이 펄고 있는 추운 아침”에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보던 창얼음/물이 되어 흐르는 은빛 부처”인 “성에꽃” (《성에꽃 눈부처》)을 본다.

한편, 시인은 항상 떠도는 자이다. 이 세상을 더욱 더 사랑하기 위해 떠돌고 때로는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해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어느 외딴곳에서 누구를 만났든 은빛 무늬 출렁이는 시편을 거두어들인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므로.

이태수 시인의 《안동시편》(문학과지성사)은 유럽의 고장 안동을 헤맨 기록이다. 시인은 그곳에서 “청량산 골짜기의 맑은 물소리

와 그 물소리에 선현들이 뿌리던 독경소리”, “청량산 뒤로 도포 자락 휘날리며, 도산서원 쪽으로 걸어가는 퇴도(퇴계의 다른 호)” (《중앙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나를 품어주기 시작하는” (《목계서원에 깃들이다》) 목계서원을 만난다.

헤매는 자에게도 꿈은 있는 법. 시인은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마음은 투명하게 글썽이는 이슬/맑고 등글게 맺힌 이슬”이고 싶고 “나직하고 완강한, 따스하고 부드러운/바람” (《아침 이슬을 보며》)이고 싶어한다. 이들 각 시편을 모으면 한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된다.

### 서정성과 해학 넘쳐

떠도는 주체와 대상이 달라지면 화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태수 시인이 안개처럼 희뿌연한 몽롱의 상태로 묵향 가득한 전통과 학문의 고장을 헤매다면, 《정동진역》(민음사)의 김영남 시인은 일상과 도회지, 그리고 경관화된 자연을 유쾌한 해학과 풍자의 언어로 떠돈다.

“겨울이 다른 곳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닷가/그 마을에 가면/...../계절마다 쓸쓸한 꽃들과 몸들을 싣고 떠나는 역”이 있고 “해안선을 잡아넣고 끓이는 라면집과/파도를 의자에 앉혀놓고/잔을 주고받기 좋은 소주집이 있다”는 <정동진>, “누가 쓴 편지일까?/거미가 소인을 찍고/능금나무가 저렇게 예쁜 우표를 붙인” <가을하늘>과 같은 서정성 넘치는 시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누워 잠자는 걸 보면 꼭 한번 올라타 보고 싶다/누워 있는 상사, 누워 있는 행정, 누워 있

는 학문 ...”의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올라타고 싶다>와 “나의 고정관념, 딱딱한 사고에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자”는 <누구나 별장을 지을 수 있다>처럼 날카로운 비수를 감춘 시들로 날렵한 블랙 코미디를 엮어놓았다.

그러나 경쾌함과 날렵함은 경박함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김영남 시인이 둘 사이의 긴장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다면, 이시영의 《조용한 푸른하늘》(창작과비평사)은 절제된 언어의 운용으로 대가다운 삶의 통찰력과 선적인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오랜 시력을 거친 시인의 원숙한 세계인식이 단단한 언어조형력으로 빛나고 있다.

가령, “참새들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인간 영혼의 어슴푸레한 모습이 보인다//굴곡과 굴곡 사이를 날다/지금 막 내게 안착한/불안한 영롱한 작은 빛이여” (《빛》)처럼 작은 사물에서 영혼의 떨림을 감지하고, “나는 죽음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싱그러운 활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지하철 정거장에서》)처럼 도시문명의 역설을 한순간에 열어제친다.

이러한 시집들은 이곳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비명을 지르는 법이 없다. 오히려 오래 삭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잘근잘근 되새김질한다. 삶의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우리를 어깨 위에 따뜻한 모닥불로 달구어진 손을 뻗어 토닥거리려준다. “아직도 세상에 사랑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 박천홍 기자